

[로스쿨 소식]

서울대학교 로스쿨 ‘신입생, 자기소개서에 부모 직업 적으면 실격’

고위층 자녀들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학교가 특혜 방지를 위한 입시제도 개선에 나섰다. 서울대는 자기소개서에 부모, 친인척의 집안배경을 적으면 안된다는 내용 등이 담긴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11일 발표했다. 서울대가 이날 발표한 모집요강 자기소개서 기재금지사항에 관한 고지에 따르면자소서에 본인 성명을 비롯해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업, 직장 등 입학전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된다고 안내했다. 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어떠한 직업도 기재가 금지되며 사업, 법조인 등 추상적으로 직종명을 기재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러한 사항을 기재했을 경우 평가과정에서 실격되거나 입학·합격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게 서울대의 설명이다.

서울대 로스쿨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로스쿨 특혜입학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강하게 대비하지는 차원으로 모집요강을 만든 것이라며 지난 8년간 입시자료를 다 들춰보고 혹시 특혜 의심사례가 있나 확인해봤지만 현재까지 서울대는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또 이번 모집요강에서 정성평가 비중을 대폭 낮추고 정량평가 비중을 높이기도 했다. 정성평가 배점은 지난해 120점(24%)였지만 올해는 50점(16.7%)이 됐고, 면접 배점 역시 지난해 200점(40%)에서 올해 50점(16.7%)로 축소했다. 대신 정량평가인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배점은 지난해 80점(16%)에서 올해 100점(33.3%)으로 올랐다. 앞서의 관계자는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객관적 지표를 강조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월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25개 로스쿨의 불공정 입학 등을 조사해 24건의 특혜 의심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대부분 부모나 친인척의 신분 등을 드러낸 사례로 교육부는 관련 로스쿨에 경고조치를 하고, 입시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도 로스쿨 입학전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입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는 자기소개서 기재금지사항 공지, 정량평가 비중 확대 등이 담겼다.

서울의 한 대학 로스쿨 관계자는 개선방안과 교육부 지침에 따라 서울대를 비롯해 전국의 여러 대학 로스쿨도 입시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